

삼성전자-어바이어 차세대 IP 통신 분야 전략적 제휴



세계적 무선통신의 강자인 삼성전자와 IP 텔레포니 분야 리더인 어바이어가 손을 잡고 차세대 IP 통신 시장 선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어바이어(Avaya)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차세대 IP(Internet Protocol) 통신 기반의 제품 및 솔루션 분야에서 공동 협력기로 했다고 3월1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양 사는 어바이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P 교환기와 같은 시스템 분야와 와이파이폰과 같이 삼성전자가 앞서 가고 있는 무선 IP단말기 분야에서 상호 제품 공급 및 공동 마케팅을 펼쳐 나가기로 했으며, 제품에 따라 삼성전자와 어바이어의 공동브랜드도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삼성전자와 어바이어가 가진 장점을 더욱 살려 이동성(Mobility)과 IP 텔레포니가 결합된 차세대 솔루션으로 기업용 IP 통신시장을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휴대폰을 비롯한 무선통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삼성전자와 IP 기반의 통신장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어바이어의 결합은 전 세계 IP 텔레포니 시장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P 통신이 차세대 통신시장의 핵심기술로 떠올르고 있어, 삼성전자와 어바이어는 음성, 영상, 데이터가 융합되는 IP 컨버전스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자, 난징 10대 기업으로 선정

LG전자가 난징 10대 기업으로 선정됐다. PDP모듈을 생산, 판매하는 LG전자 난징



법인이 난징경제기술개발구위원회로부터 총 4개 부문의 우수기업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달 난징 우징(武警)지휘학교 대강당에서 난징경제기술개발구위원회 주최로 열린 2005년도 우수실적 기업과 기관에 대한 시상식에서 LG전자는 10대 판매기업, 10대 수출기업, 환경보호우수업체, 안전근무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이 상은 난징 경제기술개발구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 수출, 안전근무, 환경보호, 사회보장, 노동관계 분야의 우수기업과 개발단지 조성에 공로한 기업에 수여된다.

LG전자 난징법인은 개발구내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05년도 기업실적에서 10대 판매기업과 10대 수출기업에 선정됐다.

또 안전근무평가에서는 3년 무사고, 안전생산관리제도, 관리위원회 협력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환경보호 부문에서도 무사고, 환경보호 관련 불만 신고, 환경보호 관련 징계에서 합격점을 받아 안전업무 우수기업, 환경보호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LG전자 난징법인장 양정배 부사장은 "이번 수상은 난징법인 전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써 앞으로도 난징법인과 난징시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목	일자
1	삼성전자, 생활가전 금형기술센터 개소	2006.03.06
2	한달여만에 저수지에서 불어 대신 올라온 휴대폰...	2006.03.02
3	삼성전자, 제3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06.03.01
4	삼성 올림픽홍보관 동계올림픽 최다 40만명 방문	2006.02.28
5	삼성전자, 포천지 선정 준경매 기업 27위	2006.02.27
6	삼성전자, 올림픽 자선경매 수익금 3만 유로 기부	2006.02.27
7	삼성전자 국내 4G포럼 개최	2006.02.24
8	삼성전자-협력업체, 초일류 향한 동반성장 다짐	2006.02.22
9	삼성전자, 전세계 빈곤아동들을 위한 '나눔올림픽'...	2006.02.21
10	삼성전자, 공학계 신입사원 전공역량 강화 방안...	2006.02.21
11	삼성전자 일본서도 와이브로 시연 성공	2006.02.17
12	세계로 뻗어가는 삼성전자 고객만족경영	2006.02.17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목	일자
1	LG전자, LnCP컨소시엄에 홀넷 기술 무상 제공	2006.03.07
2	LG전자, 상반기 정시채용으로 신입사원 1,000명..	2006.03.05
3	LG전자, KBS와 디지털TV 업그레이드 MOU	2006.03.04
4	Digital TV 포털 표준화 포럼 출범	2006.03.02
5	LG전자, 세계 최대 냉동공조 전시회 참가	2006.02.28
6	LG전자, 화이트 초콜릿폰 출시	2006.02.28
7	여름을 재촉하는 에어컨 매장	2006.02.24
8	LG전자, 해외 우수 기술인재 확보 총력	2006.02.23
9	LG전자, 경향하우징페어에서 고품격 빌트인 가전..	2006.02.18
10	LG전자, 세계 최고 성능 LCD 모니터 출시	2006.02.17
11	LG전자 경영진, R&D인재 육성 위해 캠퍼스로..	2006.02.16
12	LG전자, 전세계에서 가장 슬림한 GSM 휴대폰..	2006.02.14

대우일렉, BSH(보쉬지멘스)사와 전략적 제휴



대우일렉은 유럽 가전 시장 1위 업체인 보쉬지멘스(BOSCH UND SIEMENS HAUSGERATE GMBH)사와 연 10만대의 프리미엄급 양문형 냉장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우일렉은 3년간 35만대, 3억불 가량의 프리미엄급 양문형 냉장고를 전세계로 수출하게 되었고, 프리미엄급 제품의 대규모 수출로 고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계약은 국내 양문형 냉장고 수출사상 한 회사와 맺은 최대 규모로, 대우일렉의 기술력을 전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국내 가전사를 포함, 전세계의 우수한 가전회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대우일렉의 품질과 디자인,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안정적인 납기와 경쟁력있는 조건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대우와의 계약이 성사되었다.

이로써 대우일렉의 양문형 냉장고는 이태리, 독일, 영국 등 서유럽을 중심으로 미국과 호주 등 전세계로 연간 10만대 이상이 수출 될 계획이다. 1967년에 설립된 보쉬지멘스사는 전세계에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백색가전 시장에서 월풀, 일렉트로룩스와 함께 세계 3대 가전 메이커에 속하는 기업으로 보쉬, 지멘스 등의 메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보쉬지멘스사는 “세계적인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전 선두업체인 대우일렉과의 이번 생산 공급 체결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보쉬지멘스 냉장고 사업부문의 새로운 생산 전략을 대우와 함께 펼쳐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기, 사내대학 ‘첫 졸업생’ 258명 탄생



“회사 일을 마치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날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며, “외국인과 부담없이 이야기하고, 영문 매뉴얼도 쉽게 읽어내는 내 자신을 보니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동료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다” 2년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도 장안대 영어통역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삼성전기 LM사업팀 박종철(30세)씨의 말이다.

삼성전기는 회사가 마련한 강의동에서 본교와 같은 대학 과정 이수, 정식 학위가 부여되는 사내대학 ‘드림캠퍼스’를 '04년 3월 설립, 올해 258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기 사내대학 졸업자들은 회사 내 강의동에서 교육을 받으며 통학 시간을 절약하고, 학위 취득 사항은 인사가점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학비 33%(석사과정은 40%) 감면과 함께 교재구입비 50만원 지원 받고, 성적

우수자는 별도의 장학금도 받았다. 올해부터는 학비가 50%까지 지원된다.

임직원의 배움에 대한 꿈과 열정을 실현시키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드림캠퍼스’로 이름 붙여진 삼성전기의 사내대학은 주요 대학과 산학 연계를 통해 설립됐으며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정식대학으로, 강의, 졸업 등 학사 운영은 학교측에서, 장소 제공은 삼성전기에서 맡고 있다.

현대이미지퀘스트, 월드컵 마케팅 ‘AGAIN 2002’ 실시

디지털 디스플레이 중견 기업인 현대이미지퀘스트가 2002년 월드컵 영광의 재현을 기원하는 독일월드컵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대이미지퀘스트는 3월 7일부터 월드컵 개막전(4개월간)까지 LCD TV 40인치 제품 구입자(현대 뷰온 Q400, Q401)에게 한국팀이 4강에 진출 시 40인치 LCD TV (299만원 상당) 1대를 지급하는 ‘AGAIN2002’ 행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팀 성적에 따라 8강 진출 시 19인치 LCD TV 겸용 모니터 (50만원 상당) 1대, 16강 진출 시 17인치 모니터(30만원 상당) 1대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대이미지퀘스트는 디지털튜너 일체형 40인치 LCD TV인 ‘현대 뷰온 Q401’ 출시를 기념하여, 행사기간 동안 Q401 모델은 20만원의 중고보상 판매도 추가로 실시한다.

AGIAN 2002 행사 제품인 ‘현대 뷰온 Q400, Q401’은 현대이미지퀘스트 직영점과 전자랜드 등의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3월 7일 저녁부터는 우리홈쇼핑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팬택 제10회 장학금 전달식 실시



팬택계열은 2월 27일 김포시 통진면 소재 팬택 김포사옥에서 06년 상반기 장학생으로 선정된 4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제10회 팬택 장학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 날 차영구 팬택 아카데미 원장은 김포 시청, 교육청, 경찰서, 우체국 등 지역사회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과 학부모가 참석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역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12명, 고등학생 29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장학생은 김포지역 6개 고등학교와 해병전우회 등의 지역 단체, 일선 공무원으로부터 추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차영구 원장은 "팬택계열의 비약적 발전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두터운 애정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팬택계열은 1999년 9월 '제1회 팬택 장학금 전달식'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97명의 '팬택 장학생'을 선발, 총 6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LS전선, 중국 진중(Jinzhong)그룹과 사업제휴

LS전선이 중국 라오닝성(遼寧省) 선양시(瀋陽市) 소재 진중(金忠科技開發 / Jinzhong Technology & Development)그룹과 포

괄적 사업제휴를 맺고 2월 22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의 이번 양해각서는 LS전선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LS전선의 김충현 상무(전략 기획부부장), 김연수 이사(통신사업부장) 및 리청펑(Lee Cheng Feng) 진중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었다.

이번 사업제휴로 LS전선은 진중그룹에 광섬유와 광케이블 생산 및 설비운영기술을 이전하고, 이에 대해 러닝로열티(Running Royalty) 또는 신설회사의 자본참여를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진중그룹은 자회사가 설비 등을 갖추고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가기 전까지 LS전선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주문자상표 부착(OEM) 방식으로 중국내 판매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제휴는 진중그룹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정보통신분야를 겨냥하여 진출한 광통신 사업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장기적 사업파트너의 필요성으로, LS전선의 기술과 사업역량 및 중국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높이 평가한 결과이며, 이로써 LS전선은 중국 광통신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를 확보하게 되었다.

에이스테크놀로지, 안테나사업부문 분할

무선통신장비 전문제조업체 (주)에이스테크놀로지는 2월 28일 회사를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고, 기존법인 (주)에이스테크놀로지'와 신설법인 (주)에이스안테나'로 사업분야 전문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에이스테크놀로지는 회사를 RF사업부문과 안테나사업부문으로의 분할함으로써 업종 전문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보다 나은 고객만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주)에이스테크놀로지는 RF부품 및 중계기 등 RF 전문업체로 코스닥 상장사 유지

되며, (주)에이스안테나는 무선통신용 안테나 전문업체로 3월 말 코스닥에 재상장될 예정이다.

금번 분할이 지상파 DMB 및 와이브로 환경으로 급증하고 있는 무선통신용 안테나 수요와 맞물려 (주)에이스안테나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주)에이스테크놀로지 또한 RF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발전적 성과를 얻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주)에이스테크놀로지의 구관영 대표이사는 "이번 결정은 RF부품분야의 글로벌 업체로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라며 "법인별 책임경영 강화와 기업의 투명성 확립을 통해 글로벌 경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기업분할의 취지를 밝혔다.

TI코리아, MCU를 쉽게 활용 개발 툴 출시

TI 코리아는 마이크로컨트롤유닛(MCU) 'MSP430'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발툴 'eZ430-F2013'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eZ430-F2013은 TI가 개발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개발한 툴로, 에뮬레이터를 분리할 수 있는 소형 USB 스틱 형태다. TI의 e스토어(<http://www.ti.com/ez430>)에서 20달러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TI측은 이번 개발툴 개발이 2001년 첫 출시 이후 20배 가량 성장한 MCU 부문 사업 성장률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TI의 마크 부치니 이사는 "고객이 MCU를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요소는 성능보다도 개발할 때 필요한 '기술지원'이다"라며 "eZ430은 이러한 고객의 요구를 보다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고속MCU평가 툴 기능이 뛰어나며

USB 스틱으로 설계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SDI, 맞춤형 교육 '학습셀' 화제



삼성SDI가 '학습셀'이라는 이색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화제다.

삼성SDI가 올해 초 도입한 '학습셀'은 기존에 교육 내용 및 기간, 강사, 대상자 등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선정했던 교육 형태에서 벗어나 참여자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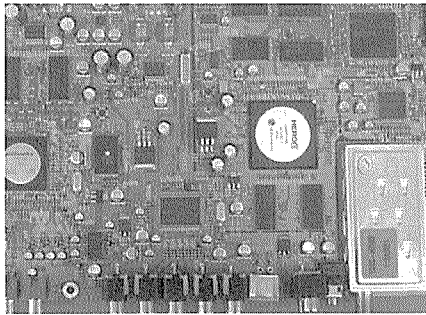
'학습셀'은 참여자가 학습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물론 교육 진행방법 또한 발표회, 강의,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학습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삼성SDI는 '학습셀' 참여 인원을 최소 5명에서 최대 20명으로제한했지만 불과 1달여만에 총 78개, 743명이 참여하고 있다.

삼성SDI는 '학습셀'을 통해 스스로 학습·탐구하고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확산, 지식근로자를 양성하는 동시에 자기 개발 뿐만 아니라 현업 중심의 업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티씨, 디지털TV 보드시장 진출

비티씨정보통신이 디지털 TV 보드시장에 진출한다.



비티씨정보통신은 디지털 TV 보드 2종을 처음 출시하고, TV보드사업을 본격화한다고 3월 5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은 32인치 이하 23인치 LCD 모니터와 디지털 TV에 적용 가능한 자가형 모델과 37인치 이상 40인치, 42인치 등 40인치대에 적용 가능한 고급형 디지털 TV 보드 등 2종이다. 특히 이 제품은 디지털 TV용 AV 보드와 디지털 셋톱박스용 보드를 통합시킨 일체형(One Board)로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앞선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일체형 보드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했다가 다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지 않고, 디지털 방송신호를 곧바로 디지털 신호로 화면에 출력시켜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며, 분리형 보드보다 5% 이상 가격이 저렴하다.

비티씨정보통신은 "디지털 TV 제조업체에서 분리형 보드를 적용할 경우 스케일러 칩과 디지털 TV 전용 칩간의 동작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만 일체형 보드를 사용할 경우 개발기간과 노력, 비용 등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이디에스, CCD 이미지센서 분야 일본의 아성에 도전장

이미지센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디지털 영상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모두 이미지

센서가 필요하다. 이미지센서는 고체촬상소자(CCD) 방식과 상보성금속산화물반도체(CMOS) 방식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화질이 뛰어난 CCD 이미지센서는 일본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아이디에스는 일본의 아성에 도전장을 던진 국내 유일의 업체다. CMOS 이미지센서의 성능이 날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규모는 CCD 이미지센서가 크다.

아이디에스는 CCD 이미지센서의 시장성을 일찍 파악하고 2004년 초부터 개발을 시작, 작년 중반 제품을 완성했다. 아이디에스가 개발한 CCD 이미지센서는 130만 화소 제품이다. 현재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중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는 제품이다.

아이디에스는 이미지센서 개발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휴대폰용 카메라모듈까지 개발했다. 130만 화소 제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자동초점 기능은 물론 초당 15프레임의 선명한 동영상 촬영까지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CCD 이미지센서의 성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특히 아이디에스는 이미지센서를 8인치 웨이퍼로 만들어 약점인 경제성도 높였다.

CCD 이미지센서는 100% 일본 업체에 의존했고 CCD 방식 카메라모듈 역시 대부분 외산이었다. 아이디에스의 CCD 이미지센서와 카메라모듈 개발로 수입 대체효과는 물론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드인 코리아 휴대폰의 경쟁력도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